

이 종 호
 (주)시원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KIRA

맑고 밝고 향기 있는 매력적인 행복도시를 꿈꾸며

Dreaming for a Lucid, Bright, and
 Colorful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의 모습 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作〉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에 '배산임수'를 기본입지로 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행정 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가 들어설 자리다.

나는 이 곳에 두 번 와 본적이 있다. 처음에는 학창시절 여기가 고향인 친구 따라 놀러와 하룻밤 묵어 간 적이 있고, 금년 6월 3일 견교부 모니터 요원의 일원으로 현장방문을 했다. 이렇게 인연이 시작된 터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이 땅위에다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본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리고 훗날 이 도시가 완성되었을 때 다시 찾아와 내가 그리던 것과 얼마나 근사한지 확인을 하고 싶고, 마음에 들면 복잡한 서울을 떠나 이곳 행복도시에 노후를 맡길 생각도 갖고 있다.

솔직히 서울은 너무 비대하고 환경오염이 심해서 살기 좋은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다. 기존의 지방 도시 역시 서울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그런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행복도시에 거는 기대가 크며, 이번 기회에 나의 소망을 담은 생각 주머니를 풀어 보여 신도시 건설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내가 원하는 전체적인 도시의 성격은 맑은 공기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 같은 웰빙 도시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듯하게 정형화된 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구부러지고 빈 구석이 있는 촌스러운 도시가스럽다. 행복도시를 만들 때 가능하면 경사진 구릉이나 습지 등은 그대로 살려서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하고, 기존에 전통가옥이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다면 원형대로 보존해서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흔적으로 남겨두길 바란다.

국가경영은 물론 도시 건설에서도 예나 다름없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치산치수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산 옆에는 크고 높은 건물을 짓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과 인공 간에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산을 깎는 등 과도한 개발은 반드시 재해를 부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산 주변에는 큰 덩어리의 파편화된 건축보다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매력이 구비 구비 산 능선 따라 넘치듯 이어지는 유기적인 건축·도

시를 만들어갔으면 싶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신도시를 만들 때 물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에 흐르는 하천은 도시의 젓줄로써 가급적 자연 상태로 보존, 생태하천이 되도록 하고 제방에는 유실수 중심의 나무 식재와 될 수 있으면 비포장 상태의 산책로 겸 조깅로를 만들어 보자. 물고기와 새들의 낙원이 바로 사람의 낙원이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결국 선(Sky Line)이다. 하천과 산 주변은 건물을 가능한 한 낮게 하여 전체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W자를 뒤집어놓은 형태가 되도록 한다. 서울은 한강변과 북한산·수락산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강의 솜통을 조이고 산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하천을 잇는 다리는 멋진 직선 보다는 완만한 아치형으로 하면 한결 운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서 건물은 높지 않고 튀지 않게 짓고 가급적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큰 틀이 마련되었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공공청사는 보안 및 관리상 산 쪽에 인접하여 짓되 5층 이하로 하여 주민들에게 편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도록 하자. 건물이 너무 거대하거나 권위주의적이어서는 곤란하다. 딱딱하고 엄숙한 과천이나 서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 수요자 위주의 공공건물이 너무 웅장하거나 호화로운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내부는 첨단시설을 갖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다. 첨단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상생 아닌가.

그리고 전면에 공원 겸 열린 광장을 조성하여 도시 구성원들이 함께 교류하고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 및 광장은 다양한 부대시설과 연계, 상권을 형성하고 콘서트와 전시공간도 함께 마련하여 시민센터의 장소가 되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다.

일부는 잔디공원으로 시원스럽게 조성하고 인접한 하천과 연계하여 생태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광장이나 공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로는 막힘없이 트여야 답답하지 않다. 조각공원 분수공원 주변 숲속에서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가급적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헬스클럽을 찾지 않고도 가까운 공원 어디서든지 쉽게 운동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환경이 마련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도로망은 가급적 지하철과 연계하여 전용 차도를 지하로 하고, 지상은 태양열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연료 차량만 이용(시속 30km이내)하게 하면 어떨까. 지상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함께 인도를 넓게 배려하거나 보 차 혼용이 되어도 무방할 것 같다. 육교와 지하도는 더 이상 보기도 싫고 힘만 든다. 횡단보도만으로 족하며 폭은 도로 폭 이상으로 하여 보행자가 거리의 주인이 되어 보자.

모든 도로상에는 계단 턱을 없애 노약자 및 장애자를 배려하는 편의시설과 중간에 쉴 곳을 마련해 주자. 가로등은 태양이나 풍력에너지로 밝힌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밝은 도시다.

이쯤해서 운치 있는 카페와 아담한 상점에 둘러 향기로운 커피 한잔을 마

시고 간단한 쇼핑을 즐길 만도 하다. 이러한 상업시설들이 있어 도심에 활력이 생기고 눈요깃거리도 된다. 그리고 건축물 조성 공간 외에는 가능한 한 자연지반으로 조성하여 꽃과 나무를 심고 주차장 등 포장에 불가피한 곳은 물이 스며 들 수 있는 재료로 예쁘게 포장을 해보자.

모든 건물에서 담장은 꼭 빼고 부득이한 경우는 장미넝쿨, 탕자나무 등으로 생 울타리를 만들자. 자연히 도시에 향기가 넘칠 것이다.

간판은 건축물과 함께 도시의 얼굴이다. 요즘 사람들은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데 간판도 그렇게 작고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층 이상엔 아예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디자인과 공공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어떨까.

아침! 그리고 보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 집을 빼놓았다. 주택은 당연히 삶의 보금자리여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만 있고 삶과 문화는 없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식처라는 인식하에 친환경 주거지를 만들어 보자. 주택의 형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보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적절히 혼합을 이루고 그 어느 것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도록 디자인 했으면 한다.

공동주택의 1층에는 탁구장·당구장 등 간단한 운동시설과 주민들의 친교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파트의 모든 옥상에 텃밭이나 습지·녹지·휴식공간을 두어 웰빙을 생활화 한다면 너무 꿈같은 이야기일까? 연료도 대체에너지인 태양열 시스템과 함께 소형 열병합발전시설로 석유에너지 사용을 극소화한 관리비 적게 드는 무공해 마을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주거용과 오피스 건물을 절반씩 배치, 인구가 밤낮으로 늘 유지되도록 하여 도심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낮에는 사무실 인력이 근무하고 밤에는 주택 거주자가 있어야 도시의 활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대형 쇼핑센터 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소형 상점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빌딩 1층은 열린 공간으로 보행자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고 오픈 스페이스와 광장, 산책로, 매점, 저층 부 상가와 부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출퇴근 걱정 없이 얼마나 편리할까.

또한 도시에서 중요한 용도의 건물이 학교,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과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이다. 서울에 있는 산꼭대기의 공공도서관이나 시 외곽지 동물원 옆 미술관,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예술의 전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정말 곤란한 게 숨어 있다. 이것이 막히면 도시의 숨구멍도 막혀 버린다. 무엇일까? 도시에서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 못지않게 중요한 길, 바로 바람 길이다. 산림에서 단지로 흐르는 바람의 길을 만들어 오염된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하여 도시가 숨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제 도시는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은 물론 공범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살기 좋고 보기에 좋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는 관광수입의 자원이며 시민의 문화와 복지 수준을 높여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야말로 개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무공해 친환경도시로 만들어져 그야말로 매력만점의 행복도시가 되는 그 날을 기다려 본다. **■**